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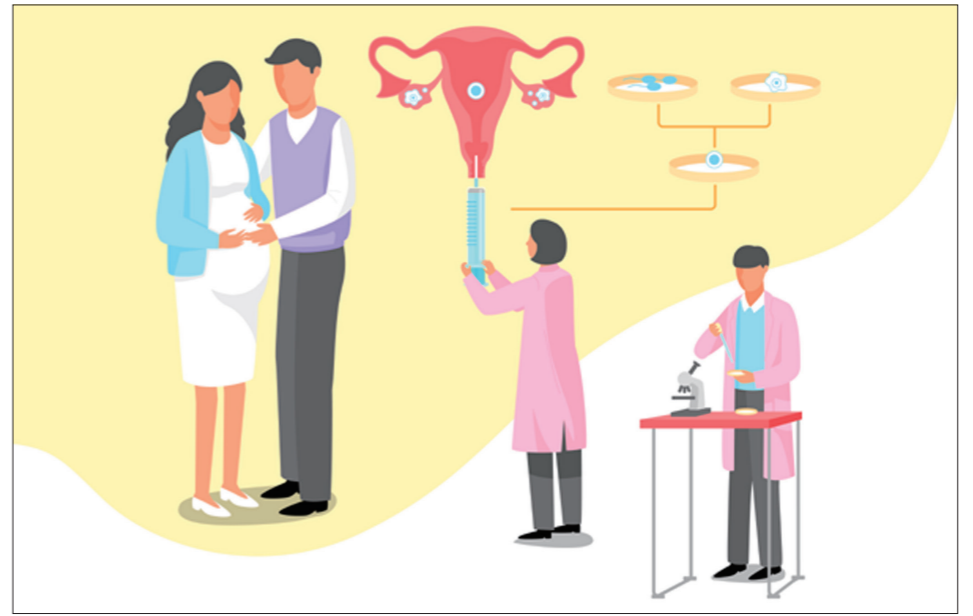
### 만혼 여성 고민 던다...나주시 '난자 냉동시술비' 첫 지원

난자 동결비 등 최대 200만원까지 1회 지원  
난임 정책 지원 확대 따라 첫 시범사업 추진  
늦어지는 결혼에 만혼 여성 가임력 향상 기대

나주시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나주시는 4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만혼(晩婚)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가임력' 저하가 심화하기 전에 난자 냉동 지원 등을 통해 늦은 나이에 결혼 또는 혼인을 앞둔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항목은 난자 채취비, 동결비 등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나주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난소기능 저하(AMH 1.0미만)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도 4월부터 회당 최대 100만원씩 총 2회까

지 지원한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는 '나주형 난임시술비'와 난임 조기진단,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난임 검진비' 지원 정책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난임진단 검진비는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검사 비용을 부부 합산 최대 3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여기에 난임 시술비는 횟수 제한 없이 회당 최대 20만~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저질환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부부의 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4개월분을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지원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순천시 왕조1동 통장협의회, 이웃 돌봄 실현



순천시 왕조1동 통장협의회가 '복지망원경'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안부살피기로 복지사각지대 제로 동네 만들기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망원경은 지난 2021년부터 왕조1동 통장협의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인적 안전망이다.

'망원경'이라는 이름처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욕구를 촘촘히 파악하여 왕조1동 복지담당에게 전달하고,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단순 연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 돌봄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취약계층 관리에 힘쓰고 있다.  
복지망원경 복지사각지대발굴단은 지난 1~3월에 40여명의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안부살피기를 시행했다. 그중 11세대에 대해 반찬·정소 등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및 공적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취약계층을 살피는데 민·관이 손발을 맞춰가고 있다.  
박진숙 왕조1동통장협의회장은 “각 가구의 형편을 잘 아는 통장들이 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서비스가 지원 될 수 있도록 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주시, 전국 최초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만든다...체육관 등 갖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운영·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광주시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전국 최초 '장애인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하며 장애인친화도시 실현을 본격화 한다.  
광주시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지원,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 어린이가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오는 10월 개원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현 호남권역재활병원(북구 분촌동) 내에 외래진료·치료실·44병상(입원 20병상)을 갖춘 재활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문을 열면 입원 대기기간이 2년에서 6개월 가량 단축돼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불편함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 옛 인화학교 부지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이 들어선다.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은 총사업비 407억 8100만원이 투입돼 숙소, 전시실, 장애체험장, 다목적체육관, 강의실, 회의실, 프로그래밍 등이 구축된다. 오는 2025년 완공이 목표다.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도 추진한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제공된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의사소통, 편의기능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9월부터 운영된다.  
배변·배뇨 조절 능력 저하로 상시 대소변수용품을 사용하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소변수집장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임행택기자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